

민주 시민배심원 경선 '1인 2표제'

6·2지방선거 공천 시행 세칙 사실상 결정 국민경선, 당원-국민 여론조사 각각 50%

민주당의 6·2지방선거 공천세칙이 사실상 결정됐다. 17일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가 최고위원회에 상정한 '6·2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시행세칙'은 시민배심공천의 경우 1인 2표로, 국민경선시에는 당원 50% + 국민 50%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경선=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시행세칙(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지 배심원'과 '전문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후보자 선출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지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31일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성·연령·지역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한 할당 전화면접 조사 방법을 통해 배심원 경선 3일 전까지 구성된다. 전문배심원은 전문배심원 모집단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한다.

전문배심원 모집단은 1천 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여성이 20% 이상, 대학생이 10% 이상 포함된다. 또한,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등과의 정치협약을 통해 추천받은 전문가 등이 대거 포함된다.

배심원단은 사회자 및 약간 명의 패널로 구성된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자질을 판단한 뒤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투표는 1인2표로 하위 1순위 표와 2순위 표를 구분해 실시해야 한다.

당선인은 후보자 2인 일 경우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인 때는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 표를 개표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 득표 순으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한 뒤 다 득표자 2인의 득표수에 합산해 최종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같은 수의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여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여성후보자가 없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결정하게 된다. 당선인을 결정할 때는 여성 후보자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참여경선=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진표,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백문배 동계올림픽 이사회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들으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선거인단은 지난해 6월1일까지 입당당원이며, 이 가운데 같은 해 9월 1일 이후 당비 납입이 없는 당원이거나 당원 선거인단 전체의 50% 이하로 구성되며, 추천당원은 전체의 20%, 나머지

당원은 무작위 추출하게 된다. 국민선거인단은 2009년 12월31일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구성된다. 당원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회의 발신 시도만을 한다. 국민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민

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에 없다고 응답하는 2009년 12월31일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자 중 유효 응답이 700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이용섭 "5·18 당시 부끄러운 일 안해"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제기한 청와대 사정비서실 행정관으로서 사건의 칼날을 휘둘렀지 않느냐는 의혹과 관련, "재무부-청와대 간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전두환 정권 때인)1985년 1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1년6개월여 동안 청와대 '사정비서실(제2부)'에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면서 "당시 '사정비서실 제2부'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 등 공직윤리와 기강확립' 관련 업무를 수행했 뿐이다"고 말했다.



최영호 남구청장 출마 선언

최영호 전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은 17일 "남구를 교육 중심, 혁신도시 거점도시, 문화중심도시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보좌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남구, 도약하는 남구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복 동구청장 출마 선언

조영복 동구의회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의 새 희망을 열겠다"고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기초의회 3·4·5대 의원과 두 차례 의장을 역임한 12년의 의정활동과 전국 230개 시·군·구 대표회장 경험을 토대로 동구의 미래를 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민주 탈당 무소속 출마

황주홍 강진군수는 17일 "고향을 위한 마지막 보탬의 기회를 갖고 3선에 도전한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황 군수는 이날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우악한 불필요 약'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최후의 반(反)민주 법'이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의 깃발을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이어간다는 비장한 다짐으로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생명이 다하더라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오랜 소신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 제시가 바른 선거운동"

지방선거 환타 조짐속 정동채·이석형·이형석 등 잇단 공약 제시

6·2 지방선거가 과열 환타 조짐 속에서도 일부 후보들의 '정책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런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 공약집을 발간, 출판기념회를 갖고 유료로 판매할 예정이다. 개편된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약집을 만들어 팔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의 공약집 출판기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의 이번 공약집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얼굴 알리기' 출판기념회와 차원이 다른 미니페스트 선거의 현실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정책 공약집 발간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유권자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단체장의 공약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감시장치 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문화를 정책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시범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도 정책 선거를 위해 각 예비후보들의 공약집 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 중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했다던 정동채 후보는 17일 교육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 세부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대학 간 통폐합과 특성화 지원, 학원 수강료 제도 보완,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전남도의 F1 대회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거세게 몰아붙이던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도

17일 "정쟁을 일으키는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이라며 "다른 후보보다 한걸음 빨리 알찬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F1 대회 속박 문제와 관련, "크루즈 여객선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는 이날 포틀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도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인 동부지역사회연구소도 이날 지방선거의 정책선거를 위한 '순천시 민생현안 5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5대 과제는 ▲무상급식 추진 및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재검토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책 시행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

"선거공약·정책 경선으로 검증 전남지역 미래 이끌 후보 선출"

김효석 민주 도당위원장

"무엇보다도 선거 공약과 정책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경선을 실시, 전남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효석 의원은 "우선 전남도당의 대대적 정비에 나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단순한 경선 관리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선 과정 등을 통해 지역민심이 투명히 후보를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심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경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선 방법은 지역민심과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꼭 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며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이 따로 있는 지역과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선은 전남도당이 일정 부분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고모의 9급 야간반 3월 2일 시작반

4월 10일 국가직시험 특별기획특강

모의고사 9급 문제풀이

»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호남유일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 야간반 개설**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방직 (모의고사) 소방직특강 9급 문제풀이

마김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 234-0234